

2023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경기	응시횟수	2
임용시험 준비시기	EX) 대학교 졸업 이후	합격 준비기간	_2_년__개월	시험준비 병행여부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20]점 / 전공(교육과정) [56]점
최종 합격점수	[153.xx]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로 2023 경기도에 합격한 신규교사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는 상상을 하며 2년의 시간을 견뎠는데, 합격한 이후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컷에서 경기도 11점가량 높아 고득점으로 1차를 합격하게 되었지만, 실기점수가 아쉽게 나와 중간정도 등수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실기를 비롯한 2차 시험은 고득점이 아닌지라 저의 합격수기를 참고하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기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낮게 받은 원인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I. 1차 시험

1. 교육학

(1) 실패원인 분석

22년 임용고시에서는 교육학 점수가 16.33이었습니다. 교육학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첫째 시험생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오픈형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이론을 정교하게 암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2년 임용에서 모든 교육학 강사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덕과 캐리 문제도 틀렸습니다.) 오픈형 문제는 학교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1차 공부를 하는 동안 쉬엄쉬엄 '행복한 교육'이라는 월간지를 읽으며 학교 현장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교육학 이론과 연관시켰습니다. 또 저는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꼼꼼하고 정교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 행정, 심리학, 교수이론 및 공학의 5영역을 중심으로 암기했고, 그 중에서도 객관식 문제에 나왔던 것들, 아직 논술형 시험에 나

오지 않아서 나올 확률이 높은 중요 영역들은 더욱 세세하게 암기했습니다. 초수이신 선생님 들은 어느정도 공부를 한 뒤 기출문제나 강사님들의 문제를 풀어 실패 원인을 분석하시고, n수이신 분들은 23년도 임용문제를 바탕으로 꼭 실패 원인을 성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공부 방법

재수 이상 n수생들의 경우 교육학 공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1, 22년 임용고시의 경우 오픈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쉽게 쓸 수 있어서 교육학을 공부할 시간에 전공에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험생으로서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공보다 양이 적어 교육학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육학도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매일 오전 2시간 정도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반기는 기본서를 천천히 읽으며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초수 때는 상반기 이론 강의 수강, 재수 때는 ‘핵심쑥쑥’ 책으로만 공부) 하반기엔 모의고사 강의도 같이 들으면서 이론을 암기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책에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보았고, 이는 시험 직전까지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청킹으로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청킹으로 암기하는 것은 내용은 남지 않고 청킹만 남아서... 위험할 수 있으나, 어느정도 이해한 이후에는 청킹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청킹으로 암기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년도 시험에서는 오픈형 문제보다 정확한 키워드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기에 제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전공

(1) 실패원인 분석

초수와 재수 모두 전공의 경우 56점을 받았습니다. 전공 점수는 똑같지만, 22년도에 비해 23년도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고, 전국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아졌기 때문에 초수에 비해 점수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초수 때도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첫째 미술교육론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암기하지 않은 것, 둘째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수 때 미술교육론에서 많은 문제를 틀렸기에(ex 파스스, 애플랜드, 다문화 문제 다 틀림. 장지연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부분들이었음.) 재수 때는 제가 약한 부분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공부했습니다. 또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재수 때 꼼꼼히 봤는데, 위상미술 심화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론과 함께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며 공부했습니다.

<p>17년도 디자인공예 기출</p>	<p>17년도 기출과 비슷하게 출제된 23기출</p>

(2) 강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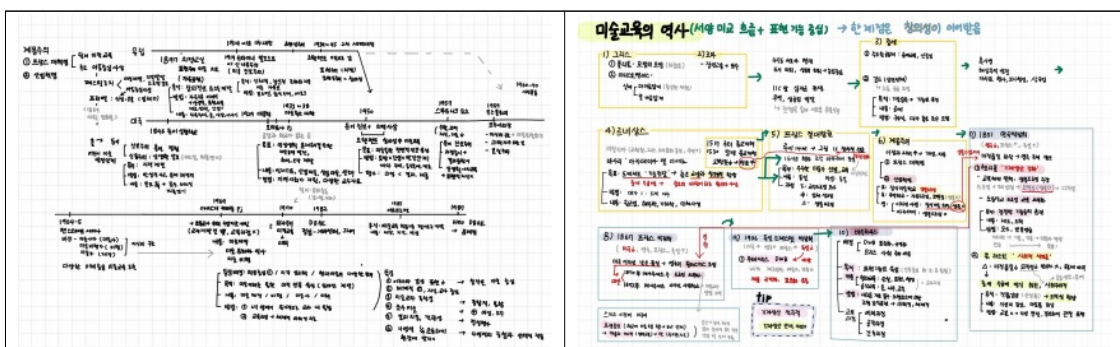
초수와 재수 모두 위상팀 직강을 선택했습니다. 초수 때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위상팀을 선택했습니다. 재수 때는 초수 때 1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강의였고 나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계속 수강했습니다. 인강이 아닌 직강을 수강한 이유는 제가 엄청난 물음표 살인마기 때문 입니다. 공부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많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 공부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시험 불안이 엄청난 학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풀이를 하며 시험 불안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상팀은 위상 선생님(표현, 서양미술사, 한국조형사)과 장지연 선생님(미술교육론, 감상비평, 동양·한국미술사)께서 한 팀을 이루어 강의해주십니다. 위상 선생님의 경우 표현 영역의 강자 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시각적 자료를 적게 보여주시는 게 아 쉽기는 하지만(프로젝터가 생겼으니깐 판화나 조소 등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시면서 설명한다 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장지연 선생님의 경 우 미술교육론의 강자이십니다. 이론 강의 때 필기해주신 판서가 체계적이고, 핵심 중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판서는 시험장에 가져가서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장쌤의 판서를 바탕으로 기본서와 심화서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미술교육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월별 공부법

· 3~4월 : 임용고시 다시 시작! 쉬엄쉬엄 공부하기.

최탈 이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절망감의 늪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다음 번 임용 역시 떨어질 것 같아 3월 강의를 시작되자마자 직강에 나갔습니다. 3~4월의 시간 동안 저는 3회독을 했습니다. (기본서로 진도 나가기 전 예습 1번, 강의를 들은 당일 날 집에 와서 밑줄 과 필기 위주로 대충 읽기 1번, 심화서로 꼼꼼하게 복습 1번)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놓고 잠자기 전에 다 찾아보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직강에서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강생 수가 줄어들어 더 편한 환경에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장지연쌤 판서를 정리한 노트를 토대로 계속 키워드 암기 및 회독을 했습니다!

· 5~6월 : 서술 및 기출 첨삭반 강의 수강

위상팀의 5~6월 강의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강의였습니다. 서술 및 논술형 기 출문제와 이를 응용한 새로운 문제를 다루주시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기출 변형과 취 지파악에 대해서 익힐 수 있었습니다. 5~6월 문제의 경우 기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서나 심화서에 옮겨 필기한 뒤 관련 이론과 함께 계속적으로 회독했습니다. 필기는 강의가 끝난 뒤

집에 오자마자 책에 바로 했고, 일요일 or 월요일엔 개인적으로 복습했습니다. 또 1주일 이내로 스테디샘들과 시간을 정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습 스테디를 진행하여 탄탄하게 복습했습니다. 5~6월 문제는 질이 제일 좋기 때문에 10월까지 계속 복습했습니다!

회독의 경우에는 심화서 1번, 기본서 1번 이렇게 했습니다.

· 7~8월 : 영역별 문제풀이 수강

5~6월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이후 책에 필기 + 개인적 복습 + 스테디원과 복습하는 방식으로 7~8월 문제풀이를 수강했습니다.

회독의 경우에는 기본서로 문제풀 영역 미리 예습하는 겸 1번, 심화서로 복습하는 겸 1번 총 2번 했습니다. 또 일주일의 하루 정도는 시간을 정해 5~6월 문제를 복습했습니다.

· 9~10월 : 모의고사반 수강

9~10월도 앞선 문제풀이와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이후 책에 필기 + 개인적 복습 + 스테디원과 복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9~10월 강의는 평가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기 보다는 문제풀이를 하며 제 상태를 돌아보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때는 심화서와 판서 필기를 바탕으로 2~3주 1회독으로 회독을 빠르게 했습니다. 막판이라 스피트를 내며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만들어놓은 청킹을 활용하여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암기했습니다. 시험이 있는 11월은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파이널 문제풀이도 있고, 유초등 임용기출도 봐야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다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 11월 : 11월 문풀 및 파이널 이론 강의, 마중물 강의 수강

11월은 문풀의 경우 직강을 갖고, 이론 강의와 마중물은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파이널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바로 회독하며 복습했습니다. 회독만으로도 정신없었지만, 초수 때 마중물을 보지 않아 틀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울면서.... 마중물 강의를 듣고 복습했습니다. 마중물 외에도 해야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라도 마중물 프린트를 들고 꾸역꾸역 복습한 것 같습니다. 파이널 강의와 마중물 덕분에 제가 잘 몰랐던 '크로마키', '도침질', '응신불'등 제가 잘 몰랐던 개념들도 채워나가며 맞출 수 있었습니다.

(4) 스테디

장독립형이기 때문에 스테디를 많이 하거나 이에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90퍼센트라면 스테디는 10퍼센트의 비중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스테디 중 효율적이었던 스테디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기상스테디 - 미술교육론

앞서 말씀드렸듯 22년도 임용에서는 미술교육론 문제를 거의 틀렸지만, 23년도에는 대부분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기상스테디 덕분이었습니다. 7:30부터 30분~1시간 가량 스테디샘과 통화하며 미술교육론의 개념을 인출했습니다. 인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통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웠기에 아침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막판에는 기상스터디를 함께 하는 선생님과 라포가 많이 형성되어서 그때그때 시간이 날때마다 번개 스터디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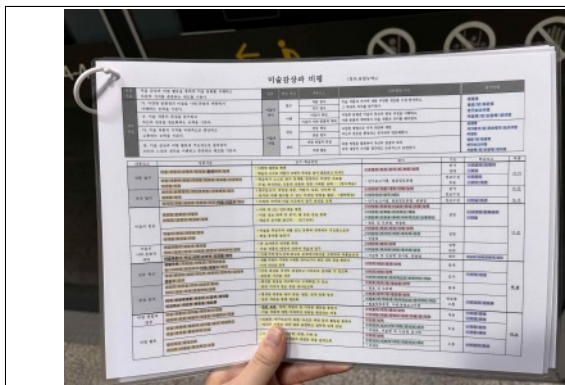
② 문제풀이 복습스터디

5~10월에 진행했던 스터디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복습한 뒤 스터디샘과 함께 문제를 번갈아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면서 보완해나갔습니다.

· Q&A

① 교육과정 외웠나요?

네. 노래를 만들어서 토시하나 빠짐없이 다 외웠습니다. 초수 때 매일 1시간씩 교육과정을 공부하며 다 외워왔기에 재수 때 따로 교육과정을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동할 때나 화장실에서 교육과정 노래를 듣거나 프린트를 들고 다니며 외웠습니다.



재수 때는 이렇게 프린트를 코팅해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꼭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시간을 쪼개서 암기했습니다.

② 필독서 보았나요?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라... 용어사전 이외의 필독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필독서가 너무 길고 내용이 많아서 봐야 할 엄두를 못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석지에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구석에 있는 문제를 팔 시간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정교하게 외우는 게 고득점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용어사전도 다 본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찾아보는 식으로 활용하거나, 친구가 중요한 단어들만 정리한 파일을 보내줘서 중요 단어 위주로 선택적으로 봤습니다. 본 용어사전은 <세계미술용어사전>, <한국회화사용어집>, <디자인용어사전>, <현대미술사전>입니다.

③ 서브노트 만들었나요?

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거 딱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했어요! 저는 위상 심화책을 바탕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심화책에 없는 내용은 기본서랑 합쳤고, 장지연샘 판서와 대학교 때 교수님 수업 자료까지 다 합쳐서 봤습니다.

④ 스트레스 관리?

저는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헬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에너지를 운동하는데 방출하여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덕분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했습니다.)

II. 2차 시험

1. 실기

(1) 실기에 자신이 없다면 미리 준비할 것

저는 실기비중이 낮은 전형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했고, 학부 전공이 미술교육이라서 실기와 관련된 전공이 없습니다. 경기 지역에는 예중·예고 출신이거나 실기력이 대단한 미대출신 전공자들이 무척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처럼 실기에 자신이 없다면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기 지역에 가고 싶은 분들은 평달에 조금씩이라도 실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22년도 임용에서 낮은 실기 점수로 인해 떨어졌기에, 평달(3~7월)에 각각 한타 임씩 조소와 수채화를 들었습니다. 평달에는 그림을 그리는 기초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본기를 익히기에 좋았습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 짜주신 계획표에는 주 1회 휴식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때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지 않고 실기를 하러 갔기 때문에 1차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기는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휴식 시간을 쪼개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수채화

저는 평달에도 1차 이후에도 홍대에 있는 회화 전문 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수채화를 정말 어려워했는데 이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께서 체계적으로 수채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탈할 때에는 묘사력, 형태감, 색감 등 전체적인 표현력이 부족했는데, 수채화 전문 학원에서 배우며 방법을 알고 나니 실력이 부족 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왔을 때 작년보다 괜찮게 그렸다고 생각하며 나름 만족했는데 실기 점수는 잘 나온 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없는 나머지 마스크테이프와 집게 자국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배경을 어둡게 칠했는데 집게 자국이 하얗게 남아서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완성처럼 보여서 점수가 깎인 것 같습니다. 둘째, 조건을 지켰지만 정말 애매하고 소심하게 지켰습니다. 이번 기출이 정물을 활용해 생태환경 느낌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과자봉지랑 목도리를 이용해서 언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모노톤으로 언덕만 표현했기에 평가위원들께서 보았을 때 생태환경 느낌의 언덕으로 보기 보다는 곡선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은 신문지나 봉지 등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것을 접거나 자르거나 구겨서 동물, 나무, 인물 등을 만들어 대놓고 생태환경 조건을 잘 지켰다고 티가 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셔도 좋으니 화면에서 유치하게 보이더라도 조건이 눈에 띄도록 표현하시고(이건 한국

화도 마찬가지로!), 끝나기 5분 전에는 묘사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집게나 테이프 자국을 없앴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조소

평달에는 조소 전문 학원을 다녔고, 1차 이후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험보고 싶어서 임용고시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조소 전문학원에서 평달에 수강했기 때문에 조소의 과정이나 형태, 양을 붙이는 방법 등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임용고시 미술학원에서는 임용고시에 특화된 조소를 배우면서 시험을 보면서 실력을 확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이나 공간구상 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조소에서는 김홍도의 <씨름>을 그대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씨름하는 인물을 크게 배치하였고, 앞의 인물과 뒤의 인물의 높이 차이에 유념하며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30분의 시간동안은 얇은 헤라를 사용하여 외곽선과 배경을 분리하고 뚝을 없애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묘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작보단 묘사를 많이 했지만, 배경이 없이 인물만 출제되었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와서 만약 다시 시험을 본다면 표정이나 옷 주름, 머리띠 등을 더 세부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할 것 같습니다.

<조소 평소작>	
	
<조소 시험작>	
	

2. 수업실연&나눔

초수 때는 위상팀의 2차 강의를 수강했고, 재수 때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공부했고, 1차 합격 이후에는 수업실연 실전 문제를 활용하여 체험/표현/감상 모두 고루고루 실연했습니다. 수업실연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 밖에 없기 때문에 만능틀을 미리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비지도안 지역의 경우는 창의적 문제해결법, 프로젝트법, 귀납적 사고법, 반응 중심 학습법, 직접 교수법 등의 만능틀을 미리 만든 후 그 안에 문제를 끼워넣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수업 나눔은 수업실연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요즘 나눔의 트렌드는 시책과 연관지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공부를 하면서 수업나눔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정리했는데, 제가 정리했던 독서교육이 딱 출제되어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추가적으로 대학교 때 친했던 사회과 선생님과 함께 수업 나눔만 밴드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타 교과는 수업 나눔의 비중이 30퍼센트이기 때문에 미술과보다 준비도나

대답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타 교과랑 하면 더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수업나눔은 타 교과랑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자기성장소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사 역량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활용역량, 창의성, 협업능력을 선택하여 작성했습니다.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제 학부시절 과거 경험과 연결지어 미래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사범대 출신이기에 자유학년제 멘토링 프로그램, 타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주제중심 융합수업 구상, 해외 교육 봉사 등 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해 수월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작성했는데, 1차 작성(5시간 소요) → 교감 선생님께 검토 받음 →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3시간 소요) → 마지막 검토(2시간 이내)를 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자기성장소개서는 저희보다 먼저 시험을 진행하는 초등임용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1차 결과 나오기 직전에 초등임용의 자기성장소개서 문제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 1차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4. 면접

1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역사과 특수과 선생님과 함께 경기도 면접책 + 시책을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시책과 관련한 면접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를 먼저 익힌 뒤 질의응답을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연습은 1차 합격 이후 주 3회씩 타교과 선생님들과 했습니다.

면접은 정말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 금방~! 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시험 직전엔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를 적는 연습을 하거나, 즉답형 문제만 추가로 연습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때 최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웃으면서 심사위원들을 차례대로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취지를 지키면서 진정성있게 답변하는 것, 긍정적인 태도, 열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공부하면서 틈틈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직관은 공부하는데 동기도 부여해주고, 2차 면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